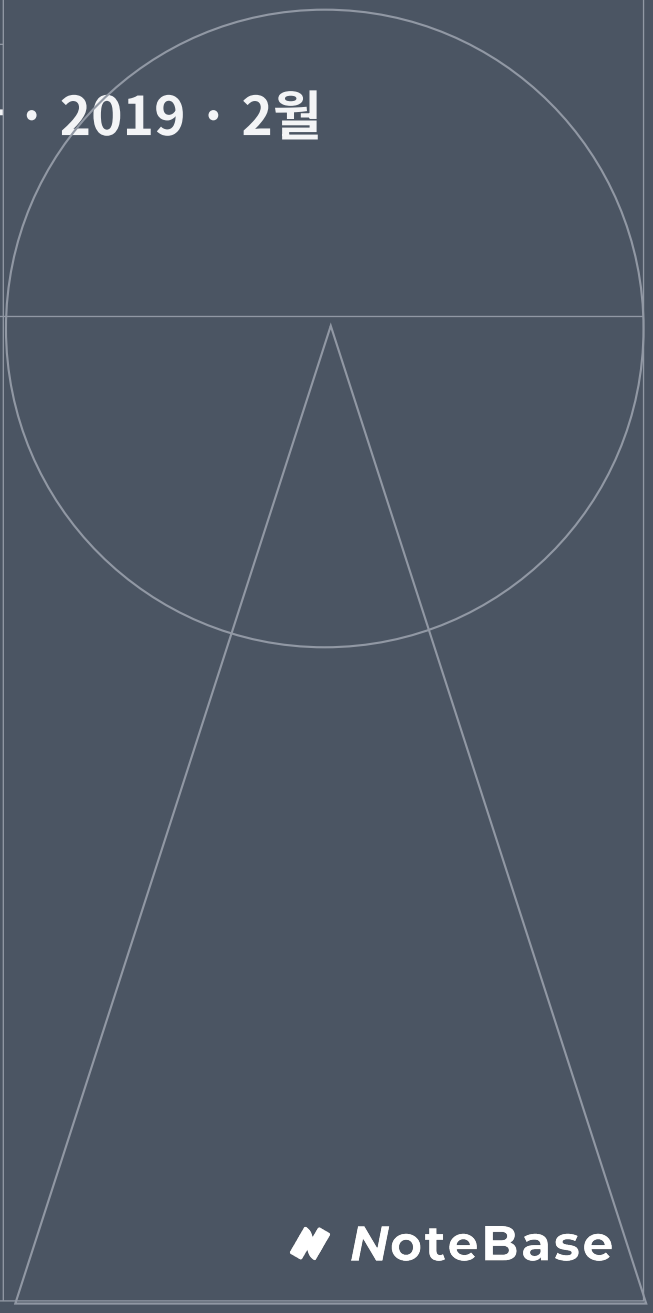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2월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2월

문 1.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신문자: 작년(1894) 3월 고부 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그때 고부 군수(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신문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하였느냐?
전봉준: 고부 민란 조사 책임자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며 체포하고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신문자: ㉠전주 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전봉준: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으니,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 『전봉준 공초』(발췌요약) -

<보기 2>
ㄱ. ㉠: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하였다.
ㄴ. ㉡: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였다.
ㄷ. ㉢: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ㄹ. ㉢: 명성 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2월

출제 포인트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 ㉡, ㉢이 각각 어느 단계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 고부 봉기 뒤 이용태의 탄압을 계기로 다시 일어난 백산 봉기이자 1차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이다.
㉡은 전주 화약으로, 정부와 농민군이 전투를 멈추고 폐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단계이다.
㉢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이후 일어난 2차 동학 농민 운동으로, 남북접이 연합하여 항일 전선을 형성했고 우금치 전투 패배로 약화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ㄹ을 고른 조합이라서 틀리다. ㄱ의 틀린 부분은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하였다'는 표현이다. 남북접 연합은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ㄹ의 틀린 부분은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는 표현이다. ㉢의 직접 계기는 을미사변이 아니라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이다. 올바르게는 ㄴ, ㄷ만 맞다.
② O: ㄴ은 전주 화약 뒤 정부와 농민군이 폐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가리키므로 옳다. ㄷ도 2차 봉기 과정에서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패배한 사실이므로 옳다. 따라서 ㄴ, ㄷ만 묶은 2번이 정답이다.
③ X: ㄱ, ㄷ, ㄹ의 조합인데 ㄷ만 옳고 ㄱ과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ㄱ은 ㉠을 ㉢의 남북접 연합 단계로 잘못 옮긴 것이고, ㄹ은 ㉢의 계기를 을미사변으로 잘못 바꾼 것이다. 올바르게는 ㄴ, ㄷ의 조합이어야 한다.
④ X: ㄱ, ㄴ, ㄷ, ㄹ을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이라서 틀리다. ㄴ, ㄷ은 맞지만 ㄱ과 ㄹ이 틀리다. ㄱ은 ㉠을 2차 봉기의 특징으로 착각한 것이고, ㄹ은 ㉢의 계기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틀린 ㄱ, ㄹ을 제외한 2번이 맞다.

오답 포인트

㉠과 ㉢은 모두 '다시 군대를 일으킨' 장면이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은 이용태의 탄압에 대한 재봉기이고, ㉢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이후의 2차 봉기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을미사변은 1895년 사건이므로 1894년 2차 봉기의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학 농민 운동 문제는 계기와 결과를 단계별로 끊어서 본다. 조병갑 수탈과 이용태 탄압은 1차 봉기 흐름, 전주 화약은 폐정 개혁 합의, 일본의 경복궁 점령은 2차 봉기의 계기, 우금치는 2차 봉기의 패배 장면으로 연결하면 판단이 된다.

암기 포인트

이용태 탄압은 백산 봉기, 전주 화약은 폐정 개혁 합의, 경복궁 점령은 2차 봉기와 우금치 패배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2.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무단 통치기의 조선총독부 통치 방식과 식민 지배 제도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단 통치는 일본이 한국을 헌법상 동등한 내지로 편입해 통치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를 앞세워 군인 출신 총독, 헌병 경찰, 제령권으로 강압 지배한 식민 통치이다.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된 식민지 최고 통치자로서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
헌병 경찰의 즉결 처분권은 무단 통치의 강압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장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일본은 한국에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통치한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이다. 실제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의 제령권과 헌병 경찰력을 바탕으로 식민지적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② O 일본은 한국 병합 뒤 국권을 박탈하고 국호를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불러 식민지의 일부처럼 다루었다.
③ O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일본 천황에 직속되었다. 총독은 입법·사법·행정 전반을 장악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④ O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법원의 정식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었다.

오답 포인트

1번은 한일 병합 이후 한국이 일본의 헌법 질서 안으로 정상 편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함정이다. 실제 식민 통치는 헌법적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고, 총독부 중심의 초법적 강압 통치였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일 병합 이후 통치 방식을 묻는 선지는 먼저 헌법 적용 여부, 총독의 성격, 헌병 경찰의 권한을 확인하면 된다. 헌법적 통치가 아니라 무관 총독과 헌병 경찰이 앞선 강압 지배이면 무단 통치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단 통치 = 무관 총독 + 헌병 경찰 + 제령권 + 즉결 처분권이다.

NoteBase

문 3. <보기>의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외인들이 세견선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의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①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나 많은 동인이 처형당했다.
② 4~5천 명의 왜인들이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③ 도원수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을 명에 파견하였다.
④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을묘왜변과 임진왜란 사이에 놓이는 16세기 조선 전기와 중후기 사건의 선후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삼포왜란(1510) → 『훈몽자회』 편찬(1527) → 을묘왜변(1555) → 정여립 모반 사건과 기축옥사(1589) → 임진왜란 발발(1592) → 강홍립의 명 원군 파견(1619)
왜 이 순서: 중종 대 사건들이 먼저 나오고, 명종 대 을묘왜변 뒤에 선조 대 정여립 모반 사건이 오며, 강홍립 파병은 광해군 대의 훨씬 뒤 사건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정여립 모반 사건은 1589년에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기축옥사가 벌어져 많은 동인이 화를 입었다. 을묘왜변 1555년과 임진왜란 1592년 사이의 사건이므로 정답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을묘왜변과 임진왜란 사이의 일'이라는 판단이다. 삼포왜란은 1510년에 일어나 을묘왜변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삼포왜란은 16세기 초 중종 대의 사건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사이에 있었다'이다. 강홍립이 이끄는 원군이 명에 파견된 것은 1619년 사르후 전투와 관련된 일로, 임진왜란보다 훨씬 뒤의 사건이다. 올바르게는 광해군 대 대외 관계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4번: X. 틀린 표현은 '을묘왜변과 임진왜란 사이의 일'이라는 판단이다. 최세진의 『훈몽자회』 편찬은 1527년 중종 때의 일이다. 올바르게는 을묘왜변보다 앞선 조선 전기 문화사 사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왜구 관련 사건인 삼포왜란과 을묘왜변을 같은 시기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또한 강홍립 파병을 임진왜란 직후 정도로 막연히 기억하면 17세기 광해군 대 사건이라는 시대 차이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기 배열 문제는 기준 사건의 연도를 먼저 잡고, 각 선지를 그 앞인지 뒤인지로 잘라 판단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1555년과 1592년 사이에 들어오는 선조 대 사건만 남기면 된다.

암기 포인트

삼포왜란 1510, 을묘왜변 1555, 정여립 모반 1589, 임진왜란 1592, 강홍립 파병 1619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4. <보기>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ㄱ)과 (ㄴ)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A)를 주어 자손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B)를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C)를 지급하였다.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ㄱ)을 지급하였다. 한편 왕실에는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D)를 지급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ㄴ)을 지급하였고, 사원에는 (E)를 지급하였다.

① ㄱ: 구분전, ㄴ: 공해전

② ㄱ: 민전, ㄴ: 내장전

③ ㄱ: 군인전, ㄴ: 공해전

④ ㄱ: 한인전, ㄴ: 내장전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전시과 체제에서 각 토지의 지급 대상과 용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음전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되어 자손에게 세습된 토지이다.
한인전은 하급 관료의 자제 가운데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군인전은 직업 군인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이다.
구분전은 직역을 이을 자손이 없을 때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 경비를 충당한 토지이고, 내장전은 왕실 경비를 충당한 토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을 구분전, ㉡을 공해전으로 본 판단이 맞다. 유가족 생활 보호를 위한 토지는 구분전이고,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한 토지는 공해전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을 민전, ㉡을 내장전으로 본 표현이다. 실제로는 ㉠은 유가족 보호용 구분전이고, ㉡은 관청 운영비를 위한 공해전이다. 민전은 사유지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이 보기의 지급 토지와 맞지 않고, 내장전은 왕실 경비용 토지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을 군인전으로 본 표현이다. 실제로 군인전은 직업 군인에게 지급한 토지로 보기의 (C)에 해당하고, ㉠은 유가족 생활 보호용 구분전이다. ㉡을 공해전으로 본 부분만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을 한인전, ㉡을 내장전으로 본 표현이다. 실제로 한인전은 하급 관료의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준 토지로 보기의 (B)에 해당하고, ㉠은 구분전이다. 또한 ㉡은 관청 지급 토지이므로 공해전이지 내장전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구분전·한인전·군인전은 모두 개인에게 주는 토지여서 지급 대상을 섞기 쉽고, 공해전과 내장전은 모두 경비 충당용 토지여서 관청용인지 왕실용인지에서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토지 제도는 먼저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유가족 생활 보호이면 구분전, 군인이면 군인전, 하급 관료 자제로 미진출자이면 한인전, 관청 운영비이면 공해전, 왕실 경비이면 내장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분전은 유가족, 공해전은 관청, 내장전은 왕실이라는 대응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보기>의 그림들의 제작시기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ㄴ. 안견의 「몽유도원도」
ㄷ. 장승업의 「삼인문년도」
ㄹ. 정선의 「금강전도」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ㄴ - ㄹ - ㄱ - ㄷ
④ ㄹ - ㄴ - ㄱ - ㄷ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회화 작품들의 제작 시기를 시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안견의 「몽유도원도」 - 세종 29년인 1447년에 제작된 조선 전기 회화이다.
2. ㄹ 정선의 「금강전도」 - 영조 10년인 1734년에 그린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이다.
3. ㄱ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궐도」 - 순조 대인 1828~1830년 무렵 제작된 궁중회화이다.
4. ㄷ 장승업의 「삼인문년도」 - 조선 말기인 19세기 후반에 그린 고사인물화이다.

왜 이 순서인가: 15세기 안견이 가장 이르고, 18세기 정선 뒤에 19세기 전반의 「동궐도」가 오며, 19세기 후반 장승업의 작품이 가장 늦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가장 앞에 둔 점이 틀렸다. 「동궐도」는 1828~1830년 무렵의 작품이므로 1447년의 「몽유도원도」보다 훨씬 뒤이다. 올바르게는 ㄴ-ㄹ-ㄱ-ㄷ이다.
② X: ㄷ을 ㄹ과 ㄱ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장승업의 「삼인문년도」는 조선 말기 19세기 후반 작품이므로 1734년의 「금강전도」와 1828~1830년 무렵의 「동궐도」 뒤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ㄴ-ㄹ-ㄱ-ㄷ이다.
③ O: 「몽유도원도」(1447) → 「금강전도」(1734) → 「동궐도」(1828~1830년 무렵) → 「삼인문년도」(19세기 후반)의 순서가 맞다.
④ X: ㄹ을 ㄴ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정선의 「금강전도」는 18세기 작품이고,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15세기 작품이므로 먼저 올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ㄴ-ㄹ-ㄱ-ㄷ이다.

오답 포인트

조선 후기와 조선 말기 작품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동궐도」와 「삼인문년도」의 선후가 흔들린다. 「동궐도」는 순조 대 1820년대 후반의 궁중회화이고, 장승업은 19세기 후반 활동 화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기 배열 문제는 먼저 시대가 확실한 기준작을 잡아 앞뒤를 자른다. 이 문항에서는 안견을 15세기, 정선을 18세기, 장승업을 19세기 후반으로 잡으면 가운데에 19세기 전반의 「동궐도」를 끼워 넣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안견 15세기 → 정선 18세기 → 동궐도 19세기 전반 → 장승업 19세기 후반이다.

NoteBase

문 6.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들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② 이들의 상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에서 화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③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④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말 왜구의 성격과 그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왜구는 고려 말 연해와 내륙을 약탈한 해상 약탈 세력이다. 중앙 막부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한 정규군이 아니라 지방 무사, 상인, 해적 등이 뒤섞인 집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고려는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같은 무장이 성장하였고, 최무선이 화포를 제작하여 왜구 격퇴에 활용할 기반도 마련하였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O
최영, 이성계 등은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명성을 쌓고 정치적 세력도 키웠다. 고려 말 무장 세력의 성장이라는 흐름과 맞는 설명이다.

② O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는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포를 제작하였다. 왜구의 상륙과 선박 접근을 막기 위한 군사 기술 발전이라는 점에서 옳다.

③ O
왜구의 침입은 단순한 해안 약탈에 그치지 않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해 지방에만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X
틀린 부분은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이다. 고려 말 왜구는 일본 막부의 중앙 통제를 받는 정규군이 아니라 여러 해상 세력이 섞인 약탈 집단이었다. 올바르게는 "왜구는 통일된 막부의 지휘 아래 움직인 군대가 아니라, 여러 세력이 결합한 채 한반도 연안과 내륙을 수시로 침입한 집단이었다."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왜구를 일본의 공식 국가 군대처럼 서술한 점이 함정이다. 학생들이 왜구의 침입과 뒤 시기의 일본 정규군 침략을 혼동하면 "막부의 통제"라는 표현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왜구 관련 선지는 먼저 "분권적 약탈 세력인가, 중앙 정부가 지휘한 정규군인가"를 가른다. 이어 고려의 대응으로 최영·이성계의 성장, 최무선의 화포 제작, 해안과 내륙 모두의 피해를 함께 떠올리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왜구는 정규군이 아니라 약탈 세력이고, 고려의 대응 키워드는 최영·이성계의 성장과 최무선의 화포이다.

NoteBase

문 7. <보기>는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나) 서울의 혜화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다)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라) 미 군정은 좌·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했다.
(마)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라) - (마) - (나) - (다)
③ (다) - (가) - (라) - (마) - (나)
④ (마) - (가) - (다) - (나) - (라)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묻는 절차·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다) 정읍 발언 —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을 언급한 사건으로 1946년 6월 3일이다.
2. (가)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미 군정의 지원 아래 좌우 합작 위원회가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1946년 10월이다.
3. (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 — 미 군정이 좌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중심으로 과도 입법 기구를 만든 것으로 1946년 12월이다.
4. (마)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재개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다시 열린 것으로 1947년 5월이다.
5. (나) 여운형 암살 — 서울 혜화동에서 여운형이 피살된 사건으로 1947년 7월 19일이다.

왜 이 순서: 정읍 발언이 좌우 합작보다 먼저 나오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은 좌우 합작 뒤에 이어지며,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재개 뒤에 여운형 암살이 일어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다)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좌·우 합작 7원칙 발표는 1946년 10월이고,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이다.
- 올바르게는 (다)-(가)-(라)-(마)-(나) 순서이다.

② X
- (나)를 (다)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여운형 암살은 1947년 7월로, 1946년에 있었던 정읍 발언·좌우 합작 7원칙·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보다 훨씬 뒤 사건이다.
- 올바르게는 (다)-(가)-(라)-(마)-(나) 순서이다.

③ O
- (다) 정읍 발언 → (가) 좌·우 합작 7원칙 → (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 → (마)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재개 → (나) 여운형 암살의 선후 관계가 정확하다.

④ X
- (마)를 맨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재개는 1947년 5월로, 1946년에 있었던 정읍 발언·좌우 합작 7원칙·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보다 뒤이다.
- 올바르게는 (다)-(가)-(라)-(마)-(나) 순서이다.

오답 포인트

1946년 사건들과 1947년 사건들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순서가 쉽게 섞인다. 특히 정읍 발언과 좌우 합작의 선후,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재개와 여운형 암살의 선후를 바꾸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방 정국 순서 문제는 먼저 1946년 사건과 1947년 사건을 갈라 놓고, 그다음 1946년 안에서 정읍 발언 → 좌우 합작 7원칙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의 흐름을 잡으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정읍-합작-입법-미소공위-여운형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8.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사의 법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손이 된다. (……) 고조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에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법칭으로 ㉠ 득난(得難)이 되었다.

①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② 대귀족으로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
④ 최고 귀족인 왕족과 왕비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의 득난이 신라 골품제의 6두품을 가리킨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와 연결되는 신라의 귀족 제도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 제도로, 혈연과 출신에 따라 정치 활동 범위와 관등 승진 한계가 정해지는 체제이다.
6두품은 진골 다음의 상위 두품으로, 일명 득난이라 불렸으며 학문과 문장에 강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갈문왕은 신라에서 왕족 계통의 유력 귀족에게 준 칭호이므로, 골품제가 존재한 신라의 설명으로 옳다.
2번 X: 틀린 표현은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이다. 이는 백제의 대성 8족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백제에 진씨·해씨 등 대성 8족이 있었다.
3번 X: 틀린 표현은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이다. 정사암 회의는 백제의 귀족 회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신라에는 화백 회의가 있어 귀족들이 국정을 논의하였다.
4번 X: 틀린 표현은 '고추가'이다. 고추가는 부여의 최고 귀족 칭호이다. 올바르게는 신라의 최고 신분층은 성골과 진골 같은 골품 귀족이었다.

오답 포인트

백제의 대성 8족과 정사암 회의, 부여의 고추가, 신라의 골품제를 서로 뒤섞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득난이라는 낯선 표현을 제시해 국가 판별을 흔드는 점을 노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득난, 6두품, 골품제처럼 신라 신분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보이면 먼저 신라를 떠올린다. 그다음 보기의 귀족 회의 명칭, 최고 귀족 칭호, 대표 귀족 성씨가 어느 나라 것인지 하나씩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라 득난은 6두품, 신라 귀족 회의는 화백, 백제는 대성 8족과 정사암, 부여는 고추가이다.

NoteBase

문 9.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ㄹ - ㄷ - ㄱ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과 임기 변화의 시기순 배열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ㄷ - 1952년 제1차 개헌(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2. ㄹ - 1972년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3. ㄴ - 1980년 제8차 개헌으로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4. ㄱ -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확정되었다.

왜 이 순서: 대통령 직선제의 발췌개헌이 먼저 나오고, 그 뒤 유신 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다시 5공화국의 대통령선거인단 간선제, 마지막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1987년 제9차 개헌 내용이므로 가장 뒤에 와야 한다. 맨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ㄷ - ㄹ - ㄴ - ㄱ이다.
② X - ㄴ은 1980년 제8차 개헌이고 ㄹ은 1972년 유신 헌법이므로 ㄴ이 ㄹ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ㄷ - ㄹ - ㄴ - ㄱ이다.
③ O - ㄷ(1952) → ㄹ(1972) → ㄴ(1980) → ㄱ(1987)의 흐름이 맞다.
④ X - ㄹ 뒤에 ㄷ을 둔 점이 틀렸다.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4년은 유신 헌법보다 훨씬 앞선 1952년 발췌개헌의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ㄷ - ㄹ - ㄴ - ㄱ이다.

오답 포인트

직선제라는 공통점만 보고 ㄱ과 ㄷ의 선후를 헷갈리기 쉽고, 간선제라는 공통점만 보고 ㄹ과 ㄴ의 선후를 뒤집기 쉽다. ㄷ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직선으로 뽑는 발췌개헌이고, ㄱ은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의 1987년 개헌이다. 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ㄴ은 대통령선거인단이라는 선출 기구 차이로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눈다. 그다음 간선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이면 유신 헌법, 대통령선거인단이면 1980년 헌법으로 잡는다. 직선제는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 4년이면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 5년이면 1987년 개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발췌개헌은 4년 직선, 유신은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5공은 7년 대통령선거인단, 1987년은 5년 직선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9성을 개척했다.
ㄷ.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영토로 편입시켰다.
ㄹ.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ㄹ - ㄴ - ㄷ - ㄱ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의 대외 관계 사건을 시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ㄷ → ㄱ → ㄴ → ㄹ이다.
1. ㄷ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2.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다.
3.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4. ㄹ 몽골과 강화가 성립된 뒤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왜 이 순서인가: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이 먼저 있었고, 그 뒤 3차 침입에서 귀주대첩이 일어났다. 윤관의 동북 9성은 그보다 뒤인 예종 때 일이며, 개경 환도는 몽골과의 강화 이후인 1270년의 일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ㄴ보다 앞에 둔 점은 맞지만, 가장 앞에 와야 할 사건은 ㄷ이다. 서희의 강동 6주 확보가 993년, 귀주대첩이 1019년이므로 ㄱ이 먼저일 수 없다.
틀린 표현: ㄱ ㅡ ㄴ ㅡ ㄷ ㅡ ㄹ
올바르게는: ㄷ ㅡ ㄱ ㅡ ㄴ ㅡ ㄹ이다.

② X
첫 단계가 ㄴ인 점이 틀리다. 윤관의 동북 9성 개척은 예종 때로, 서희의 담판과 강감찬의 귀주대첩보다 뒤의 사건이다.
틀린 표현: ㄴ ㅡ ㄷ ㅡ ㄹ ㅡ ㄱ
올바르게는: ㄷ ㅡ ㄱ ㅡ ㄴ ㅡ ㄹ이다.

③ O
ㄷ(993) → ㄱ(1019) → ㄴ(1107~1109) → ㄹ(1270)의 흐름이 고려의 대외 관계 전개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ㄹ을 가장 앞에 둔 점이 결정적으로 틀리다. 개경 환도는 무신 정권 말기인 1270년으로, 앞의 세 사건보다 훨씬 뒤에 일어났다.
틀린 표현: ㄹ ㅡ ㄴ ㅡ ㄷ ㅡ ㄱ
올바르게는: ㄷ ㅡ ㄱ ㅡ ㄴ ㅡ ㄹ이다.

오답 포인트

거란 관련 사건인 ㄷ과 ㄱ의 순서를 바꾸기 쉽고, 여진 정벌인 ㄴ을 막연히 거란 전쟁보다 앞선 일로 착각하기 쉽다. 개경 환도는 몽골과의 강화 이후라는 시대 감각만 잡아도 맨 뒤로 정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대외 관계 순서 문제는 상대 세력별로 먼저 묶은 뒤 연도를 대략 배치하면 정리가 쉽다. 거란 1차 침입의 서희 담판, 거란 3차 침입의 귀주대첩, 여진 정벌과 동북 9성, 몽골과의 강화 뒤 개경 환도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서희 강동 6주 → 강감찬 귀주대첩 → 윤관 동북 9성 → 몽골 강화 뒤 개경 환도 순서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의 충성파들은 약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①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하였다.
②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④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직접 계기가 되었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4·19 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확산되어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이다.
민주회복국민회의와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 체제 반대 운동과 관련되고, 서울의 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집권 과정에 맞선 민주화 요구와 관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이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던 재야 세력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다. 올바르게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학생·시민 시위가 4·19 혁명으로 확산되었다고 해야 한다.
② O: 4·19 혁명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무대 쪽으로 진출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한 민주화운동의 전개를 설명한 것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부마항쟁"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다. 올바르게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민주화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서울의 봄"이다. 서울의 봄은 1980년 10·26 사태 이후 민주화 요구가 고조된 시기를 가리킨다. 올바르게는 3·15 부정선거 이후의 대규모 학생·시민 시위는 4·19 혁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여러 민주화운동을 모두 "부정선거·독재 반대"라는 넓은 틀로 묶어 혼동하게 하는 데 있다. 보기의 조병옥 사망,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은 3·15 부정선거의 단서이므로 유신 반대 운동이나 1980년 민주화 요구와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병옥 단일후보, 자유당의 사전투표, 이기붕 득표율 조작, 3·15 부정선거가 보이면 4·19 혁명으로 판단한다. 유신, 부마,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0년대, 서울의 봄은 1980년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 부마항쟁은 유신 반대, 서울의 봄은 1980년 민주화 요구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2.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은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②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칭한다.

④ 숙종 20년(1694)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숙종 대 환국의 순서와 그때마다 서인·남인 가운데 어느 붕당이 집권했는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제2차 예송(갑인예송, 1674) - 남인이 승리하여 집권하였다.
2. 경신환국(1680) -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
3. 기사환국(1689) -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서인이 밀려나고 남인이 집권하였다.
4. 갑술환국(1694) -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되고 남인이 축출되면서 서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왜 이 순서인가: 예송에서의 붕당 우세가 먼저 바뀌고, 이후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왕실 후계 문제와 왕비 문제를 계기로 집권 세력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2차 예송으로 집권한 것은 서인이 아니라 남인이다. 또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은 서인이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사건이 아니라,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틀린 표현은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과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제2차 예송논쟁으로 남인이 집권하였고,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이다.

② O
경신환국 뒤 서인이 집권한 뒤에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송시열 계열의 노론과 윤증 계열의 소론으로 나뉘었다. 숙종 대 붕당 정치는 서인과 남인의 교체뿐 아니라 서인 내부의 노론·소론 분화까지 함께 이해해야 정확히 정리된다.

③ X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한 사건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의 명칭은 갑술환국이 아니라 기사환국이다. 틀린 표현은 '갑술환국'이며, 올바르게는 '기사환국'이다.

④ X
숙종 20년(1694)에는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된 것이 아니라, 폐위되었던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되면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이 사건이 갑술환국이다. 틀린 표현은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이며, 올바르게는 '폐위되었던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되면서'이다.

오답 포인트

경신환국·기사환국·갑술환국의 명칭과 집권 붕당 변화를 따로 외우면 ③처럼 사건 이름을 바꾸어 넣은 선지에 흔들리기 쉽다. ④처럼 인현왕후의 폐위와 복위를 뒤집어 제시하는 함정도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숙종 대 붕당 변동 문제는 '갑인예송 남인 집권 -> 경신환국 서인 집권 -> 기사환국 남인 집권 -> 갑술환국 서인 재집권'의 흐름을 먼저 세운 뒤, 각 사건의 계기가 예송인지 원자 책봉인지 왕비 복위인지를 연결해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숙종 대 권력 이동은 '갑인예송 남인, 경신 서인, 기사 남인, 갑술 서인'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조선시대 노비 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 수는 솔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

④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시대 노비의 신분 세습 원칙, 사노비에 대한 주인의 권한 한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의 구분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노비 신분 세습: 조선의 노비는 대체로 세습되는 천민 신분이었다.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함께 거주하며 봉사하는 노비이고,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며 일정한 신공을 바치는 노비이다.
외거 사노비의 경제 활동: 외거하는 사노비는 토지를 경작하며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일정 기간 국역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이다. 조선 시대 노비는 대체로 부모의 신분을 따라 세습되었고, 일정 기간 국역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양인이 되는 제도는 아니었다.
2번: X. 틀린 부분은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이다. 사노비는 매매·양도·상속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주인이 마음대로 살해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3번: X. 틀린 부분은 "그 수는 솔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주인과 떨어져 살며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의 비중이 더 컸다. 올바르게는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보다 훨씬 많았다.
4번: O.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면서도 사경지를 받아 경작하거나 독자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거노비의 경제 활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노비의 세습 원칙에 예외적 신분 변동 사례를 일반 규칙처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2번은 사노비가 재산처럼 거래되었다는 점을 과장하여 주인의 생사여탈권까지 인정된 것처럼 만든 함정이다. 3번은 솔거노비와 외거노비의 생활 형태를 알더라도 수적 비중을 반대로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노비 문제는 먼저 신분이 세습되는지, 다음으로 솔거·외거의 거주와 납부 방식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외거노비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노비는 세습, 외거노비는 분거와 신공, 사노비라도 임의 살해는 불가라는 구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인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니, (㉠)이(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①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
②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집필하였다.
③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자실기』를 단서로 인물 ㉠을 이이로 특정하고, 조선 성리학자들의 대표 저술과 학통, 사상적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이이: 현실 개혁을 중시한 성리학자로 『성학집요』, 『격몽요결』, 『기자실기』 등을 남겼다.
이황: 소수서원 편액 하사 건의와 영남학파 형성으로 연결되는 학자이다.
조식: 경과 의의 실천을 중시한 학자로 제자층도 별도로 형성되었다.
서경덕: 평생 벼슬하지 않은 처사에 가까웠고 기를 중심으로 한 유기철학을 전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이다. 이는 풍기군수 이황이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사액받도록 한 일과 연결된다. 이이의 업적이 아니다.
② O: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은 이이의 대표 저술이다. 지문에 나온 『기자실기』도 이이가 지은 책이므로 ㉠을 이이로 보면 이 선지가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이다.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은 주로 이황의 학통과 연결된다. 이이의 학설은 김장생 등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와 더 가깝다.
④ X: 틀린 부분은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이다. 이는 서경덕의 설명이다. 이이는 여러 관직을 지내며 현실 개혁론을 펼친 학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마다 소수서원, 영남학파, 유기철학처럼 유명 키워드를 붙여 다른 인물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지문에서 『기자실기』가 보이면 먼저 이이를 떠올리고, 나머지 선지는 대표 키워드로 걸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사 문제는 먼저 지문의 저술이나 사건을 인물에 연결한 뒤, 선택지는 대표 키워드로 대조하면 된다. 『기자실기』, 『성학집요』, 『격몽요결』은 이이, 소수서원과 영남학파는 이황, 유기철학과 처사는 서경덕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이이는 『성학집요』, 『격몽요결』, 『기자실기』이고, 이황은 소수서원과 영남학파이며, 서경덕은 유기철학이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① ㉠은(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② ㉡은(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의 대표 저술과 핵심 주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박지원: 『과농소초』를 편찬한 북학파 실학자로, 청의 선진 문물 수용과 농업·상공업 진흥에 관심을 가졌다.
정약용: 『마과회통』을 저술한 실학자로, 의학 연구와 함께 여전제를 중심으로 한 토지 제도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유형원: 『반계수록』을 저술하고 토지 제도 개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실학자이다.
박제가: 서얼 출신 북학파 실학자로 『북학의』를 통해 상공업 진흥과 청과의 통상 무역을 주장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은 『과농소초』의 저자 박지원이다.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진 인물로 대표되는 것은 정약용이므로, 틀린 표현은 "㉠은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이다. 올바르게는 "정약용이 신유사옥 때 유배되었다"이다.
2번: O. ㉡은 『마과회통』을 저술한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의학 분야 저술을 남겼고, 토지 제도 개혁안으로 여전제를 주장하였으므로 선지의 연결이 옳다.
3번: X.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 등을 주장"한 인물은 박제가이다. ㉠은 박지원이므로, 틀린 표현은 "㉠은 서얼 출신으로 … 주장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박제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을 주장하였다"이다.
4번: X. 『반계수록』의 저자는 유형원이다. ㉡은 정약용이므로, 틀린 표현은 "㉡은 『반계수록』을 집필해"이다. 올바르게는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하였고, 정약용은 여전제를 주장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박지원·박제가·정약용·유형원의 대표 저술과 주장을 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특히 북학파 계열의 박지원과 박제가를 혼동하거나, 토지 개혁서인 『반계수록』을 정약용의 저술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된 저술을 기준으로 인물을 확정한 뒤, 그 인물의 신분·대표 사상·관련 사건을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과농소초』는 박지원, 『마과회통』은 정약용으로 먼저 잡으면 나머지 선지 판별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과농소초는 박지원, 마과회통과 여전제는 정약용, 반계수록은 유형원, 청과의 통상 무역은 박제가로 묶어 둔다.

NoteBase

문 16.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 태백광노(太白狂奴) 또는 무치생(無恥生)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함

① '혼'과 '백' 중 '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윤세복이 만주에 세운 동창학교에 참여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④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박은식의 호, 저술, 민족주의 사학 성격, 임시 정부 활동을 다른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박은식은 태백광노, 무치생 등의 호를 쓴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이다. 국혼을 중시하며 상하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냈다.
윤세복은 만주에서 동창학교를 세운 인물이며, 박은식은 이 학교 교사로 참여하였다.
김구는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 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박은식은 민족의 정신인 국혼을 중시하였다. 나라의 형체가 손상되어도 국혼이 살아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므로 옳다.
② O
동창학교는 윤세복 등이 만주에 세운 민족 교육 기관이고, 박은식은 이 학교의 교사로 참여하였다. 보기의 인물과 동창학교의 연결은 맞다.
③ O
박은식은 192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이다.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올바르게는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내고 민족주의 사학을 전개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한인애국단을 임시 정부 관련 활동으로만 보고 박은식에게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임시 정부의 직책은 박은식, 한인애국단 조직은 김구라는 인물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호와 저술로 인물을 먼저 확정한 뒤 단체 조직과 직책을 따로 대조하면 된다. 태백광노, 무치생, 『안중근전』이면 박은식이고, 한인애국단이면 김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박은식 = 국혼 중시, 『안중근전』, 임정 2대 대통령 / 김구 = 한인애국단

NoteBase

문 17. <보기>의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太郎), 스티븐스(Stevens)
(나)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① (가)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② (나)의 3개의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했다.
③ (가)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④ (나)의 철도 건설에 토지·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1차 한일협약에 따른 고문 정치와 일본의 철도 부설권 침탈을 시기와 내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메가타 다네타로: 재정 고문이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대한제국 재정을 장악하며 일본의 경제 침탈을 뒷받침하였다.
스티븐스: 외교 고문이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대한제국 외교를 간섭하며 일본의 침략을 두둔하였다.
경인철도·경부철도·경의철도: 일본이 군사 이동과 경제 수탈 기반을 마련하려고 장악하거나 부설한 철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으로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되었지만 실제 활동은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잠식하는 데 협력하였다.
2번: O. 경인철도는 처음에는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얻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이 이를 넘겨받아 완성하였다. 경부철도와 경의철도도 일본이 침략 목적 아래 부설하였으므로 세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한 철도라고 볼 수 있다.
3번: X. 틀린 표현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이다. 올바르게는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을사조약 이후가 아니라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각각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으로 들어와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간섭하였다.
4번: O. 일본은 철도 부설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고, 철도 부설은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메가타와 스티븐스의 역할 자체는 맞기 때문에 3번은 시점을 놓치면 넘어가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을사조약 이후'라는 표현이며, 실제 고문 정치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때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이나 사건의 연결이 맞아 보여도 먼저 시점을 확인한다. 대한제국 침탈 과정은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정미7조약의 순서로 정리해 두면 비슷한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메가타·스티븐스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의 고문이고, 을사조약은 그다음 외교권 박탈 단계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귀신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하겠는가.

① 동천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②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④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단서로 고구려-수 전쟁을 식별하고, 이를 다른 대외 전쟁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구려-수 전쟁: 영양왕 때 수의 침입에 맞서 벌어진 전쟁으로, 을지문덕의 활약과 살수 대첩이 핵심이다.
고구려-당 전쟁: 보장왕 때 당의 침입에 맞서 벌어진 전쟁으로, 안시성 전투 등이 대표적이다.
백강 전투: 백제 부흥 운동 과정에서 왜군이 원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나당 연합군에 패한 전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동천왕 때가 아니라 영양왕 때의 고구려-수 전쟁이다. 동천왕 시기는 위의 침입과 관련되므로 시기와 상대가 다르다. 틀린 표현은 '동천왕'이며, 올바르게는 '영양왕'이다.
② O: 시구는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것으로, 612년 수의 침입 때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수군을 크게 격파한 사실과 연결된다.
③ X: 당 태종의 친정은 645년의 고구려-당 전쟁이다. 이 시와 관련된 전쟁은 수 양제의 고구려 침입이다. 틀린 표현은 '당 태종'이며, 올바르게는 '수 양제'이다.
④ X: 왜군 3만 명의 원군 참전과 백강 전투는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을지문덕과 살수 대첩의 고구려-수 전쟁과는 무관하다. 틀린 표현은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수군이 살수에서 크게 패배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당 태종'과 ④의 '백강 전투'는 다른 시기의 대외 전쟁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을지문덕, 우중문, 살수라는 단서가 보이면 수와의 전쟁으로 바로 연결해야 혼동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을지문덕, 우중문, 살수, 영양왕이 함께 보이면 고구려-수 전쟁으로 먼저 묶는다. 당 태종, 안시성은 고구려-당 전쟁으로, 왜군과 백강은 백제 부흥 운동으로 갈라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을지문덕-우중문-살수 대첩은 영양왕 때 고구려-수 전쟁이다.

NoteBase

문 19.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해는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② 제2대 무왕은 산동지방의 등주(登州)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③ 제3대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그리고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④ 제5대 성왕 대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해의 건국 성격과 왕대별 주요 사건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해사는 왕별 업적을 연결해서 정리해야 풀린다.
무왕은 대외 팽창과 당 공격이 핵심이고, 문왕은 제도 정비와 천도가 핵심이며, 선왕은 영토 확장과 해동성국 전성기가 핵심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O
발해는 고구려계 유민을 중심으로 말갈 세력까지 포괄하여 성립한 나라로 이해한다. 고구려 계승 의식과 말갈 포섭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잡으면 된다.

② O
무왕 때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이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무왕 대의 대표 사건이 대당 강경책과 등주 공격이다.

③ O
문왕은 발해의 제도를 정비하고 수도를 옮기며 통치 체제를 안정시켰다.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기고 다시 동경용원부로 천도한 사실로 정리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제5대 성왕 대'이다.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이룬 것은 제10대 선왕 대이다.
올바르게는 '제10대 선왕 대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 해동성국으로 불렸다'이다.

오답 포인트

성왕과 선왕의 왕명을 비슷하게 제시해 전성기 왕을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발해 전성기는 성왕이 아니라 선왕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해 문제는 왕 이름만 보지 말고 왕대의 대표 키워드를 바로 연결해서 판단한다. 무왕은 등주 공격, 문왕은 천도와 제도 정비, 선왕은 해동성국으로 연결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왕은 등주 공격, 문왕은 천도, 선왕은 해동성국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에 이르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홍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①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②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친 왕이 공민왕임을 파악하고, 공민왕의 반원 개혁과 고려 말 왜구 토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보기의 왕은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을 겪은 뒤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며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애고,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뒤에는 자제위를 두어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제위는 공민왕 때 설치된 측근 기구이다. 공민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둔 조직이므로 공민왕 관련 설명으로 옳다.

② O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하여 설치한 기구이다.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바로잡으려 한 개혁 조치이므로 옳다.

③ O
공민왕은 원의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이는 대표적인 반원 자주 정책이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이다. 박위의 쓰시마 공격은 공민왕의 업적이 아니라 고려 말 왜구 토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공민왕 관련 사실로 고치려면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에 대응하였다' 정도가 맞다.

오답 포인트

공민왕은 홍건적 격퇴, 반원 정책, 전민변정도감처럼 개혁과 대외 대응이 많아 고려 말의 다른 왜구 토벌 사건과 쉽게 섞인다. 특히 '박위-쓰시마 정벌'은 고려 말 군사 활동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공민왕 업적으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기의 단서로 왕을 확정한 뒤, 그 왕의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면 된다. 공민왕은 '홍건적 침입, 반원 자주 정책,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전민변정도감'으로 묶고, 박위의 쓰시마 공격처럼 고려 말 일반 사건은 따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민왕 = 홍건적 격퇴 + 반원 자주화 + 전민변정도감이다.

NoteBase